

# 남도에 호텔 빠지다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교육 4월 26일까지 콘텐츠 기획·제작자 등 26명 대상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남도 소재의 문화·관광 자원을 직접 답사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이를 산업적 가치로 발전시키는 '남도에 훌딱 빠지다'를 마련했다.

오는 23일 나주 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에서 이론 첫 수업을 실시한다.

'남도에 훌딱 빠지다'는 2017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콘텐츠 스타트업 소양교육 프로그램이다. 전라남도의 관광지와 설화, 판소리 등 유·무형 자원 체험을 통해 전남의 콘텐츠를 상품화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비 48억원을 비롯해 모두 10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2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공모를 통해 선발한 작가, 만화가, 웹툰 제작자, 출판사 대표, VR제작자 등 총 26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매주 1회씩 총 8회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세부적으로는 ▲이론(문화콘텐츠와 지역 스토리텔링 사례 등) ▲전문가와 함께하는 1박2일 팸투어(강진, 장흥, 구례, 보성, 완도, 해남) ▲워크숍(과제 실현 및 멘토링 교육) ▲발표회(상품화 기획서 및

시나리오) 등으로 운영된다.

지역인문학 전문가(대동문화재단 조상열 대표)와 문화 산업계 전문가(순천 미디어인 정현필 대표)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창작기획 멘토링을 돕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대화 및 토론형식의 열린 교육으로 참여자들의 창의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아이디어 완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육 과정에 1박 2일 기간으로 3차례에 걸쳐 '자연에 빠지다', '소리에 빠지다', '섬에 빠지다' 등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답사 일정도 잡혀 있다.

참가자들은 마지막 발표회에서 그동안 보고 배운 문화자원을 활용한 상품화 기획서를 발표하고 수료증을 받게 된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전라도의 이야기를 전라도 밖에 알려보자는 게 핵심 요지"라며 "외지인 뿐만 아니라 전라도 사람도 잘 모르는 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알려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미술사학자이자 전 문화재청장 유홍준 명지대 교수를 초청해 '남도에 훌딱 빠지다' 열린 특강을 진행해 180여명이 몰려 성료로 이룬바 있다. /이연수 기자



이우환 화백



안도 다다오

## 프랑스 아틀리에 이우환 미술관 건립 17세기 호텔 건물 일본 건축가 안도 다다오 설계

프랑스 남부 아틀리에 한국 출신 현대미술의 거장 이우환(82)의 개인미술관이 건립된다.

21일(현지시간)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이우환 재단은 프랑스 남부 아틀리에의 17세기에 지어진 호텔 건물을 매입해 미술관으로 꾸밀 계획이다.

아틀리에 유명한 고대 로마 시대 원형경관장과 포름광장 사이 구도심에 있는 유서 깊은 건물로, 미술관으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은 일본의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맡기로 했다.

다다오는 일본의 작은 섬 나오시마의 이우환 미술관을 설계한 인연으로 프랑스의 이우환 미술관 설계에 참여한다.

1970년대 프랑스로 건너온 뒤 프랑스와 일본, 한국을 오가며 작품활동을 해온 이우환은 프랑스에서 특히 명성이 높다.

이우환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을 통해 사물과 공간, 위치, 상황, 관계 등에 접근하는 미술 유파인 '모노하' (物派)의 중심인물로 꼽힌다.

지금도 주로 일본에서 지내지만, 파리에 아틀리에를 소유하고 있는 그는 여전히 프랑스의 화랑과 컬렉터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 아시아 작가다.

이우환은 르몽드와 인터뷰에서 "아틀리에의 거장 이우환(82)의 개인미술관이 건립된다. 21일(현지시간)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이우환 재단은 프랑스 남부 아틀리에의 17세기에 지어진 호텔 건물을 매입해 미술관으로 꾸밀 계획이다."

프랑스 남부의 아틀리에 고대 로마 제국의 유적지가 많이 남아 있는 곳으로, 세잔과 반 고흐 등 프랑스 인상파의 거장들이 작품활동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아틀리에는 2012년 이우환에게 작품집 출판을 제의했고, 이듬해 이우환은 아틀리에 생로랑 르피에르 교회에서 '부조화' (Dissonance)라는 제목의 전시를 열었다.

이우환은 자신의 이름을 딴 미술관이 들어설 오래된 3층짜리 건물이 로마 시대 문명의 흔적과 폐허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 시간에 대한 영감을 많이 준다고 말했다.

재단에 따르면 건축가 안도 다다오는 향후 3~4년에 걸쳐 건물을 개조해 1~2층은 이우환의 기증작품 전시공간으로, 3층은 기획전시공간과 사무실로 꾸밀 예정이다.

/연합뉴스



## 한국작가회의의 "고은·이윤택 회원 제명 등 징계할 것"

국내 가장 큰 작가 단체인 한국작가회의가 '미투' 가해자로 고발된 고은 시인과 이윤택 연출의 회원 제명 등 징계에 나선다.

작가회의는 22일 보도자료를 내 "3월 10일 이사회를 소집해 '미투' 운동 속에서 실명 거론된 고은, 이윤택 회원의 징계안을 상정 및 처리한다"고 밝혔다.

작가회의의 관계자는 "어제 집행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결정했다. 시민사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생각을 공유했다. 다만 작가회의에서 할 수 있는 징계가 자격정지, 제명뿐"이라고 설명했다.

고은 시인은 1974년 작가회의의 전신인 자유실천문인협회를 설립할 당시부터 중심 역할을 했으며, 현재까지도 상임고문직을 맡아왔다.

이윤택은 연극 연출과 극작을 함께 해왔기에 작가회의의 희곡 부문 회원으로 등록돼 있으나, 실

제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작가회의 측은 전했다.

작가회의의 정관에 따르면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회원은 소명절차를 거쳐 이사회 결의로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자격정지된 회원이 3개월 이내에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을 때는 이사회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작가회의는 2016년 하반기 문단 내 성

폭력을 고발하는 운동이 처음 일었을 때에도 징계위원회가 결성되지만 했을 뿐 실제 징계 조치는 하지 않은 사실이 최근 확인돼 비판을 받았다.

최근 여성인 이경자 작가를 새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진과 집행부를 새롭게 꾸린 작가회의는 앞으로 기존의 관행을 탈피해 성폭력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작가회의는 후속 조치로 다음달 10일 이사회

에서 '윤리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을 제안하고, 성폭력을 비롯한 반사회적 일탈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신속한 징계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고 밝혔다.

또 기존의 '평화인권위원회'에 '성폭력피해자보호대책팀' (가칭)을 신설 기구로 뒤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미투 운동을 계기로 남성문화권력에 대한 준엄한 자기비판과 냉엄한 비판적 성찰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건강한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 식당, 커피숍, 편의점, 노래방 - 점포임대

- 지리산 온천지구 내, 최고위치 (지리산 온천 정문앞)
- 1층 - 식당(65평), 커피숍 (55평), 편의점 (55평)  
지하 - 노래방 (85평)
- 호텔건물, 비/건 없음, 커피숍/편의점 분할가능
- 임대료 - 협의, 즉시 시설 가능
- 문의 - 010-3605-5000

## 나주, 2층주택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즉시 입주 가능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시세 - 1억 1000만원  
매매 - 8200만원
- 주인직매. 010-3605-5000